

5/1/2022 (어린이주일 설교아웃라인)

- 본문: 딤후/2 Tim. 3:14-17
- 제목: “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양육”
“The Spirit-led Child-Nurturing”

오늘은 어린이주일(Children's Sunday)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린양을 잠시 양육해 달라고 부모들께 부탁하셨습니다.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?

Q: How can we raise our children led by the Holy Spirit?

I. _____서부터 _____을 가르치라 (14-15절)

Teach the _____ from childhood

- 시/Psalm 127:3
- 신/Duet. 6:6 [표준]
- 엡/Eph. 6:4
- 딤후/2 Tim. 1:5 [표준]
- 잠/Prov. 22:6

II. _____에 이르도록 _____하라 (15절)

P_____ for s_____ through faith in Jesus

- 마/Matt. 16:26
- 눅/Luke 12:20-21
- 요/John 5:39

III. 예수 _____ 주라. (16-17절)

S_____ the C_____ of Jesus

- 딤펢/1 Tim. 6:11
- 벵후/2 Peter 1:4

복음 (The Gospel)

*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(요 3:16).

*For God so loved the world, that he gave his only Son,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. (John 3:16)

셀모임, 이렇게 해 보세요

(Sharing Questions for Family Devotion & Cell Meeting)

1. 감사: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/ 어려웠던 것 나눈다.
2. 말씀: 주일설교말씀을 요약한다 (말은이).
3. 나눔: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에 순종/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?
4. 기도: 내 주위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? 내 삶에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인가?

*셀모임 목적은 “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것”입니다.

*매주 모임이 어려우시면 한달에 두번은 모이시길 권장합니다.

*셀모임 주제는 ‘주일설교말씀’ 나눔과 위에 4가지입니다. (60-90분).

*VIP 를 위해 기도하시고, 셀모임에 초대해 보세요.

*삶의 부흥은 1) 말씀묵상 2) 기도 3) 가정예배 4) 셀모임 5) 제자훈련을 통해 이루어 질겁니다.

목회서신: “가정의 달을 맞이하여...”

사랑하는 올 네이션스 교회 성도님들께,

우리교회는 “2세 교육”을 잘 하기 위해, 미셔널 패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금요일 (4/29) Youth 패밀리 나이트에 수고하신 이지혜, 폴 김, 에마 루니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
- 5/1(주일)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. 어린자녀들과 청소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.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영아 유아부, 유치부, 유년부, 중고등부 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- 5/6(금) Youth 자녀들을 위해 성경적 성교육 (Biblical Sexuality)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. 동성애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봐야 할까요? 부모님들도 초청합니다.
- 5/8(주일)은 어머니 날/Mothers' Day 입니다. 이날,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!
- 5/14(토) C3 Ministry Network (10-2시). 참 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.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운동입니다.
- 5/15(주일) 시니어 VIP 초청 효도잔치를 준비합니다. 셀별로,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는 시니어 분들을 기도하시고 초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 수고해 주시는 여선교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- 5월은 대학생 졸업식이, 6월은 고등학생 졸업식이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!
- 행복한 가정이 되기위해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려 보세요. 성령님이 도와 주실겁니다.

한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. 전진석 드림.